초고령사회 일본의 지매정책 현황과 평가

류건식(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24.4.5.

목차

- Ⅰ. 고령화와 치매의 영향
- Ⅱ. 치매정책의 변천과 현황
- Ⅲ. 치매정책의 평가
- Ⅳ. 치매정책의 시사점

고령화와 치매의 영향

- 1.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2007년)
- 2. 치매환자수 급증: 고령화속도 비례
- 3. 치매의 사회적 비용 증대
- 4.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 심화 : 금융자산 및 부동산 거래 위축
- 5. 고령화대응, 치매정책의 추진

치매 (Dementia) 는?

정의

-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정신이 없어 진다 "라는 뜻
- 치매는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 뇌질환"을 의미 (인지기능 장애)

명칭

- 치매 (Dementia / 癡呆, 어리석을 癡, 어리석을 呆)
 - 모멸감 명칭 변경 : 일본(2004년)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知症)

유형

-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20여개이상
- 알츠하이머 치매 : 전체 치매의 60-70%, 뇌졸증 등 혈관손상에 의한 치매 : 15-2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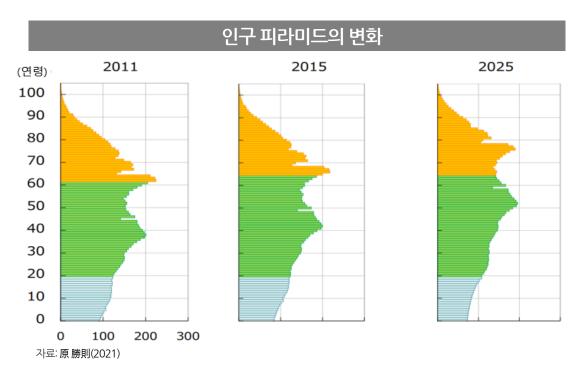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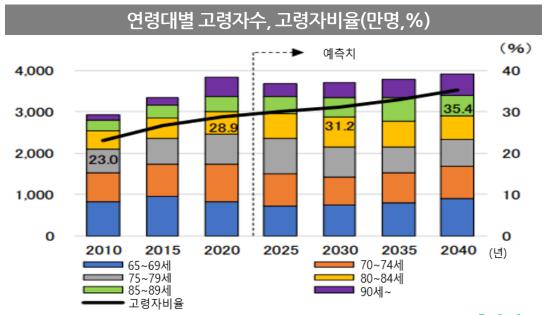
- 치매는 환자개인, 가족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문제로 확대
- 치매는 장수(長壽)의 '적(敵)

" 노인층이 암보다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노인질환 1위 "

1.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2007년)

- · 일본, 단카이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65세 인구 증가 등으로 빠르게 역삼각형 구조로 전환
- 제2차 베이비붐세대(1971~1974년 출생세대)가 노인층 진입하면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 예상
- · 일본은 2007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
 - 고령화율 2010년 23.0% → 2030년 31.2% → 2040년 35.4%(약 4,000만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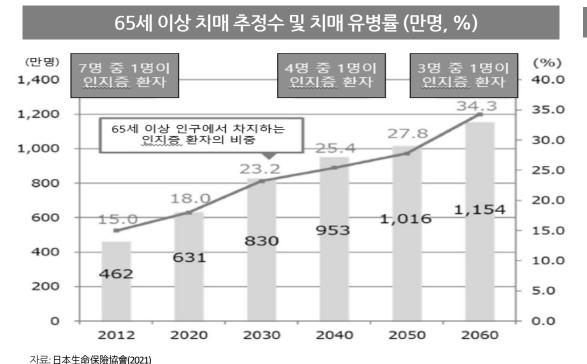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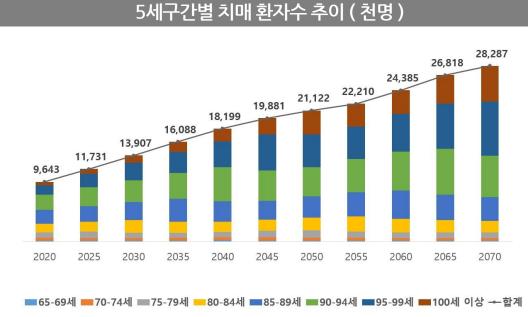
자료: 三井住友信託銀行(2022)

| Kiqi 보험연구원

2. 치매(인지증) 환자수 급증: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

- · 후생노동성 전망(2014년) :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환자
- 2040년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환자 → 2060년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환자(34.3%)
- · 닛세이 기초연구소 전망(2023년) : 204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46.3% (노인 2명 중 1명 치매)
 - 2040년 치매환자수 1,8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김 보험연구원

〈참조〉 청년성 치매 (초로기 치매): 65세 미만 치매환자

- · 치매(인지증)는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질병이지만 65세 미만의 연령층에도 발생 : 전국민 대상 질병
- 치매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역 세대이므로 치매에 걸려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절대적
- · 후생노동성(2020년): 전국의 청년성 치매 환자수 35,700명(10만명당 유병률 50.9명)

연령대별 청년성 치매 유병률 (세,명)

연령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			
	남자	여자	합계	
18~29	4.8	1.9	3.4	
30~34	5.7	1.5	3.7	
35~39	7.3	3.7	5.5	
40~44	10.9	5.7	8.3	
45~49	17.4	17.3	17.4	
50~54	51.3	35.0	43.2	
55~59	123.9	97.0	110.3	
60~64	325.3	226.3	274.9	
18~64	-	-	50.9	

kiqi 보험연구원

자료: 佐渡充洋(2014)

3. 치매의 사회적 비용 증대

- ·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2014년 14조 5,139억엔 → 2060년 24조 2,630억엔으로 증가
-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 개호비(간병비), 비공식케어비용(주변사람들이 취업할 수 없는 비용) 등 3가지 비용이 주로 차지
- ·사회적 비용의 GDP 대비 비중(%): 2.97%(2014년) → 4.14%(2025년)
 - 의료비 0.52%, 간병비 1.87%, 비공식 케어비용

치매의 사회적 비용 추계 (조엔) 25 20 15 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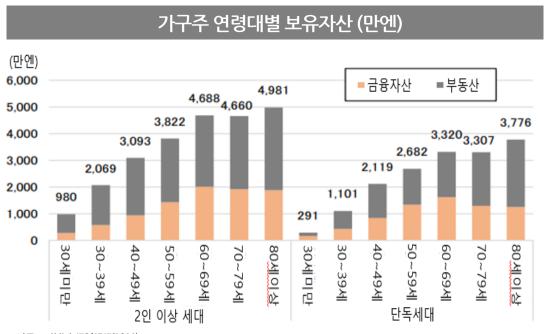
GDP 대비 치매의 사회적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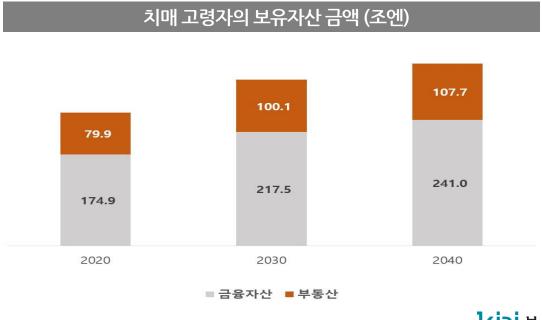
구분	2014년	2025년
의료비	0.39	0.52
간병비	1.32	1.87
비공식 케어비용	1.26	1.75
합계	2.97	4.14

자료: 佐渡充洋(2014)

4. 치매 환자의 자산동결 심화 : 금융자산 및 부동산 거래 위축

- · 치매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거래 및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자산동결 발생 →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활에 지장 (1차) → 소비위축과 자산거래 감소 등으로 사회경제에 많은 영향(2치)
- ·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보유자산(금융자산, 부동산) 규모가 비례적으로 증가 -> 80세 이상 4,981만엔
- 2040년 치매고령자의 보유자산 총액은 **약 349조엔(전체 가계 보유자산의 12.1%)** : 금융자산 241조엔, 부동산 108조엔





자료: 三井住友信託銀行(2022)

자료: 三井住友信託銀行(2022)

<mark>ไ<i</mark>국i 보험연구원

5. 고령화 대응, 치매 정책의 추진 : 고령화 단계별 정책

- ㆍ치매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제반 영향은 일본의 치매정책 수립에도 변화를 초래
- 고령화 환경속에 치매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치매정책을 추진

고령화와 일본의 치매관련 정책 (요약)

-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특별양로노인홈 창설 등)
- ·1970년 **고령화사회** 진입
-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질병예방)
- ·1984년 인지증 케어에 관한 연수사업 개시
- ·1987년 '후생성치매성노인대책추진본부 보고서' 발간
- 1989년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 ·1992년 인지증대응형 데이서비스센터 개시
- ·1994년 신골드플랜, 고령사회 진입
- ·1997년 인지증대응형 그룹홈 개시
-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골드플랜21
- ·2003년 '고령자개호연구회 보고서' 발표
- ·2004년 치매에서 인지증으로 용어 변경
- ·2005년 인지증서포터 양성 연수 개시
- ·2006년 주치의 인지증 대응력 향상 연수 개시
-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 ·2008년 '인지증 의료와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발표
- ·2012년 **오랜지플랜**(인지증시책 5개년 계획)
- ·2015년 신오렌지플레(인지증시책 추진 종합전략)
- ·2019년 **인지증시책추진대강**(2019~2025년)
- ·2023년 인지증기본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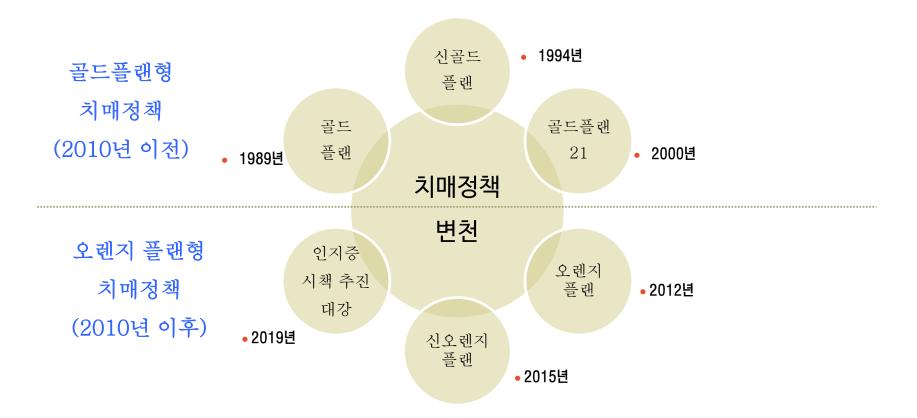
I⟨i२i 보험연구원

치매정책의 변천과 현황

- 1. 치매정책의 변천
- 2. 골드 플랜형 치매정책
-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
- 4. 소결 : 치매정책의 의미

1. 치매정책의 변천

- · 일본의 치매정책은 2010년 이전의 치매정책, 2010년 이후의 치매정책으로 구분되고 변천됨
- **2010년 이전 치매정책(골드플랜형)** : 골드플랜(1989년), 신골드플랜(1994), 골드플랜 21(2000) 등
- 2010년 이후 치매정책(오렌지 플랜형): 오렌지플랜(2012년), 신오렌지플랜(2015년), 인지증 시책 추진대강(2019년)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1/3): 골드플랜

- · (배경) 고령화시대, 전국민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수/복지 사회 구축 필요성 대두
- 고령자의 보건복지 관련 공공서비스를 정비하고 재택 및 시설복지 사업 강화 요구
- · (내용)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택 및 시설서비스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골드 플랜 정책(7개) 설정

골드 플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정책

- 홈 헬퍼 10만명 양성, 단기입소 생활개호 5만 병상 확보 등 시정촌에서의 재택복지대책 긴급정비
- 재택개호지도원 2만명, 재택돌봄 지역자원봉사자 8만명 확보 등을 통한 '와병노인 제로작전'의 전개
- 재택복지 내실화를 위한 '장수사회복지기금' 설치
- 특별양호노인홈 24만 병상, 인구과소지역 고령자생활복지센터 400개소 등의 '시설 긴급정비 10개년 사업' 추진
- '밝은 장수사회 만들기 추진기구'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장수과학연구추진 10개년 사업 추진
- '고향21 건강장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고령자 복지시설 종합 정비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2/3): 신골드플랜

- · (배경) 고령자 개호서비스 기반 정비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할 필요성 대두
-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던 골드플랜이 신골드 플랜으로 전환

고령자 개호 서비스 기반 정비 목표 상향 조정 내용

서비스 분류	서비스 종류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홈 헬퍼 (홈헬퍼 스테이션)	10만 명 -	17만 명 1만 개 소	
	단기입소 생활개호	5만 병상	6만 병상	
재택서비스	데이서비스/데이케어	1만 개 소	1.7만 개 소 _	17만 명 1만 개소 6만 병상 7만 개소 1만 개소 5,000개소 29만 병상 28만 병상 400개소
	재택개호 지원센터	1만 개 소	1만 개 소	2
	노인방문간호스테이션	_	5,000개 소	
시설서비스	특별양호 노인홈	24만 병상	29만 병상	
	노인보건시설	28만 병상	28만 병상 고	(<u>}</u>
	고령자생활복지센터	400개 소	400개 소	
	케어하우스	10만 곳	10만 병상	

서비스 분류	서비스 종류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기숙돌보미·개호직원	_	20만 명
인재 양성/확보	간호직원 등	_	10만 명
	$OT^{1)}\!\cdot\!PT^{2)}$	_	1.5만 명

- 주: 1) OT(Occupational Therapist)는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심신기능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식사, 양치 등 일상생활 동작, 가사, 예술활동, 놀이, 스포츠 등 생활 속에서의 작업이나 동작 등을 이용해 훈련·지도하는 작업치료사를 의미함
 - 2) PT(Physical Therapist)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의 신체운동기능 회복 및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시 아래 운동지도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물리치료사를 말함

자료: 厚生勞動省(1994)을 참고하여 작성함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2/3): 신골드플랜

- ㆍ (내용) 고령자 개호 서비스 기반의 종합적 정비와 개호 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대책 실시
 - 2개의 큰 목표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개(각각 4개와 7개)의 구체적 목표 설정

신 골드 플랜 주요 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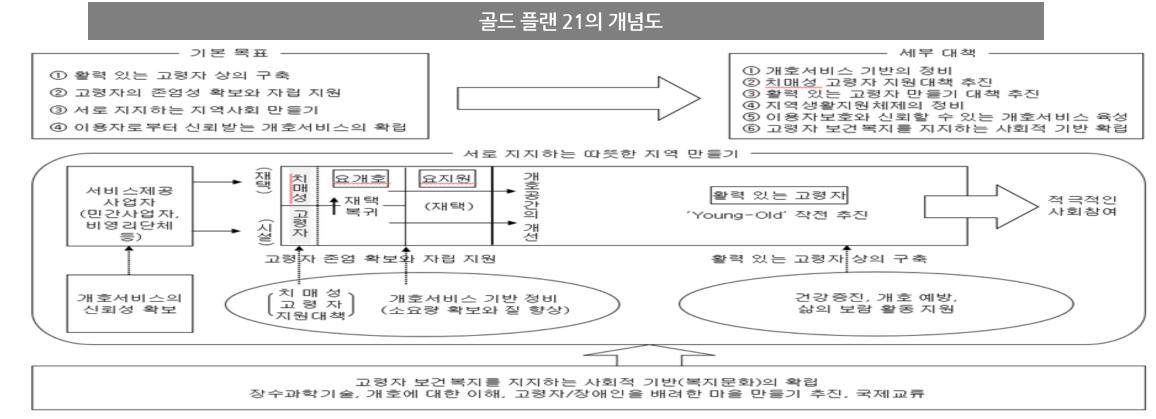
고령자 개호 서비스 기반의 종합적 정비

- 지역 고령자 개호 서비스 내실화
- 돌봄필요 지원자의 자립지원시책의 종합적 실시
- 치매성 노인대책의 종합적 실시
- 고령자의 사회참여, 삶의 보람대책 추진
- 고령자 개호인력의 양성, 확보대책 추진
- 복지 용품의 개발/보급 추진
-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제공 체제의 종합적 정비
- 민간서비스 활용 등 서비스 공급의 다양화/탄력화
- 장수과학연구의 종합적 추진
- 주택대책, 도시조성 추진
- 봉사활동, 복지교육, 시민참여 추진

개호기반 정비를 위한 지원시책의 종합적 실시

2. 골드플랜형 치매정책(3/3): 골드플랜 21

- · (배경)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에 대응, 새로운 개호서비스 종합 플랜 설정 필요성 대두
- · (내용) 활력 있는 고령자상의 구축, 고령자의 존엄성 확보와 자립지원, 서로 지지하는 지역 사회 만들기,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개호서비스의 내실화 등 4가지 목표 설정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1/3): 오렌지플랜

- ㆍ(배경) 치매노인의 급증과 어려운 국가재정 등으로 시설개호에서 재택개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
- ·(내용) 인지증에 걸려도 본인의사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좋은 지역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목표
- (1) 표준인지증 케어페스 보급, (2) 조기진단, (3) 지역 생활을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 (4) 인지증환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구축 (5), 인지증 환자가 지역생활 할 수록 가족을 포함하여 지원 강화 등 7가지 정책

치매(인지증)을 아는 지역 만들기 10개년 구상

2005년 '인지증을 아는 원년'

2005년도 도달목표

많은 주민이 인지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알고 각자가 대응 및 지원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소재 만들기, 지역 만들기 모델을 형성해 간다.

- · 인지증의 특성
- · 인지증에 걸려도 자신답게 살 것
- · 인지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 인지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의 대응
- · 인지증에 걸렸을 때의 대응
- 인지증에 걸린 사람을 지역에서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능성

2009년(중간연도)

2009년도 도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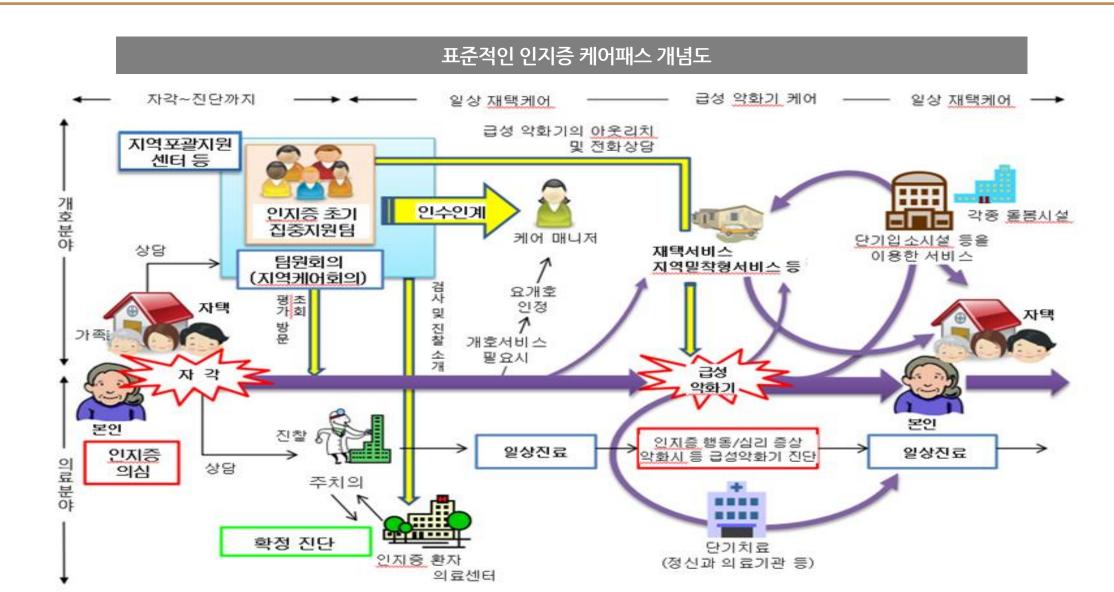
- 인지증에 대해 배운 주민 등이 100만 명 정도에 도달하고, 지역의 서포터가 된다.
- 인지증에 걸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모델 지역을 각 도도부현에 몇 개씩 만든다.

인지증을 아는 지역 만들기 10개년

2014년도 도달목표

인지증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람(서포터)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면서 모든 마을이 인지증에 걸려도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지역이 된다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1/3): 오렌지플랜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2/3): 신오렌지플랜

- · (배경) 인지증 고령자 등에게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인지증 시책 추진 종합전략'(신오렌지플랜)을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
- · (내용) 인지증 고령자에게 친화적 지역 만들기를 핵심으로 하는 7대 과제 제시

신오렌지 플랜의 기본 이념과 과제

신오렌지플랜의 기본 이념

인지증에 걸린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살던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7 대

과제

- ① 인지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보급 · 계발의 추진
- ②인지증용태에 따른적시 · 적절한의료 · 개호등의 제공
- ③ 청장년성인지증대책의 강화
- ④ 인지증환자의 돌봄자에 대한 지원
- ⑤ 인지증 환자를 포함한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추진
- ⑥ 인지증 예방법 · 진단법 · 치료법 · 재활 모델 · 돌봄 모델 등 연구개발 및 성과의 보급 추진
- ⑦ 인지증 환자 및 그 가족의 관점을 중시

3. 오렌지플랜형 치매정책(3/3):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 · (배경) 치매발병을 늦추고 치매에 걸려도 희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치매환자나 그 가족 관점에서 대책 마련 필요 (상생과 예방관점 대책)
- · (내용) 2019년 인지증 시책 추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을 발표
 - 본인발신 지원, 예방, 의료/케어/돌봄서비스 지원 등 5개 과제 추진

신오렌지 플랜과 인지증시책 추진대강 비교



4. 소결 : 치매정책의 의미

- · 골드플랜형 치매정책은 고령자 복지정책의 한 부문으로 치매정책을 다루고 있는 반면, 오렌지형 치매정책은 하나의 독자적인 치매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 등에 차이 존재
- 고령자 보건복지의 세부 정책내용은 치매 환자에게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
- ㆍ치매정책이 고령자 복지정책의 한 부문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
-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치매정책의 전략적 차원에서도 의미

치매정책의 의미

골드플랜형 치매정책

- 고령자 복지정책의 한 부문으로써 치매정책 추진
- 신골드 플랜의 치매성 노인대책의 종합적 실시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제시 등

오렌지형 치매정책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수 증가 등으로 독자적인 치매정책 추진
 - 별도의 치매정책 및 법안 마련(인지증 기본법 제정) 등

치매정책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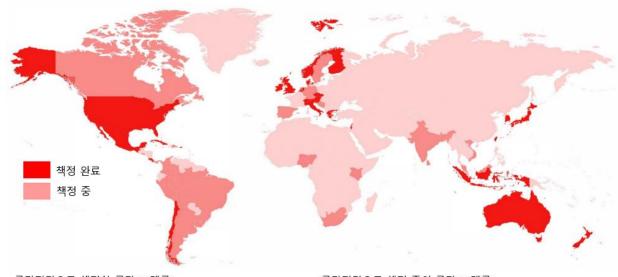
- 1. 범정부차원의 국가치매정책
- 2. 유연한 스텝업 방식 적용
- 3. 전국민 대상 및 치매 전단계 대책
- 4. 지역포괄시스템 중심 정책
- 5. 목표의 구체화와 디테일한 성과지표관리
- 6. 정부와 금융회사간 역할 분담 정책

1. 범정부차원의 국가 치매 정책 (정책 주체 측면)

- · 후생노동성 중심으로 내각관방/내각부/경찰청/금융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전략으로 추진
- 인지증 시책 추진관계 각료회의 : 치매 문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치매 정책 추진
- · 인지증 기본법 :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인지증 시책 추진본부 설치/ 운용 (행정수반 = 치매정책 책임자)

인지증 추진 각료회의 조직도 인지증대책 추진 관계 각료회의 ○ 정부의 종합적인 인지증 대책 컨트롤 타워 · 의장 : 내각관방 장관 · 부의장 : 건강·의료전략 담당 국무위원 후생노동성 장관 ※ 기타 구성원으로 13개 부처 장관 지식인회의 간사회 인지증 민관협의회 ○ 대책 전반 · 좌장 : 총리 보좌관 ◆ ○ 구체적 대책 등에 대한 협의 전문위원회 · 좌장대리 : 후생노동성 의무기감 사무국: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 구성원 : 각 성의 국장급·심의관급 ○ 각 분야(연구개발 등) 사무국(내각관방/후생노동성) • 연구개발, 산업촉진, 국제협력 (내각관방) · 공적 대책의 기획·입안 (후생노동성)

치매정책의 국가전략 채택 상황



국가전략으로 책정한 국가(27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푸에르토리코,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대만, 미국, 영국 국가전략으로 책정 중인 국가(29개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스웨덴, 베트남, 우루과이, 보네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르바토스, 브라질,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브루나이, 캐나다, 콜롬비아, 인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독일, 케냐, 파나마,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페루, 포르투갈, 남아공, 스페인

2. 유연한 스텝업 방식 적용 (정책 설계 측면)

- · 일본의 치매정책은 고령화 및 노인복지 상황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적 방식을 지향
- 1단계: 1989년 골드플랜 책정 이전의 고령자복지의 한 분야로 접근하던 단계, 2단계: 골드플랜부터 신오렌지 플랜 책정 이전까지의 후생노동성 중심 대책 단계, 3단계: 신오렌지플랜 이후 국가전략차원의 접근 단계
- · 특정상황에 원활대처 -> 처음 계획을 고수하지 않고 상황에 유연하게 변경/조정하는 가속화 방식병행
- · 즉,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과감한 변화를 오히려 정책을 강화하는 유연한 스텝업 방식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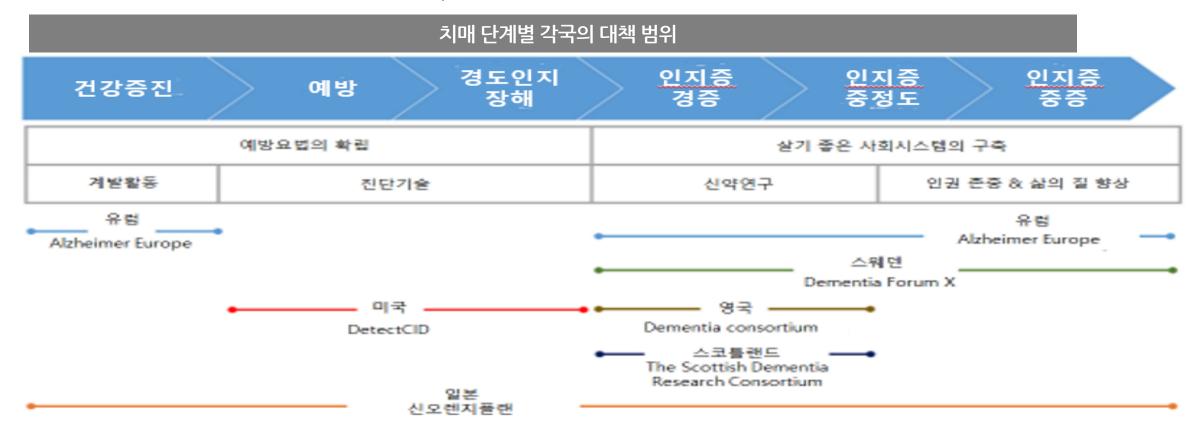
유연한 스텝업 방식의 정책 추진(단계적 + 가속화 방식 병행)

유연한 스텝업 정책 방식

- 일본의 치매정책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단계적 방식)
 - 1단계(1989년 이전) → 2단계(신오렌지 플랜이전) → 3단계(국가전략 단계)
- 6차례의 치매정책을 추진해오는 동안 3차례 정책 변경/조정 (가속화 방식)
 - 하나의 정책이 종료되기 전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으로 이행 (예: 인지증시책추진대강)

3. 전국민 대상 및 치매 전 단계 대책 (정책 범위 측면)

- · 치매관리 대상 : 노인성 치매를 벗어나 전국민 대상 치매(청년성 치매)로 확대 (오렌지플랜이후)
- ㆍ신 오렌지플랜이 시작된 2015년부터 치매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전 단계에 걸친 종합대책으로 추진
- 일본 : 치매의 전 단계(치매초기 중증단계)에 걸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 지향 (외국과의 차별성 존재)
- 미국: 2-3단계인 예방과 인지 장애에 초점, 영국: 경증치매 및 중간 정도 치매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자료: 류건식, 손성동(2023)

4-1.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중심 정책(정책 운영 측면)

- · 일본 치매 정책 특징은 '전략은 국가에서', '실행은 지역에서'를 의미하는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중심 정책임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장 익숙한 지역에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mark>의료, 개호, 개호예방, 주거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mark>되는 시스템
-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를 노인클럽, 자치회, 자원봉사자, NPO 등에서 적극 지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개념도 아프면... 개호가 필요하면... 개 호 · 급성기병원 [시설·거주계 서비스] · 악급성기, 회복기, 재활 병원 개호노인복지시설 [재택서비스] 통소 · 입소 개호노인보건시설 통원 · 입원 · 방문서비스 · 복지용구 일상적인 의료 · 통소서비스 · 단기입소 · 주치의/치과의사 · 지역의 제휴병원 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 · 24시간 대응 방문서비스 . 주거 • 자택 · 서비스 부가 고령자용 주택 등 · 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 케어매니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대략 30분 이내에 생활지원 · 개호예방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담업무 및 일상생활권역(중학교구)을 서비스 코디네이터 NPO 5 노인클럽 단위로 상정 실행 자치회 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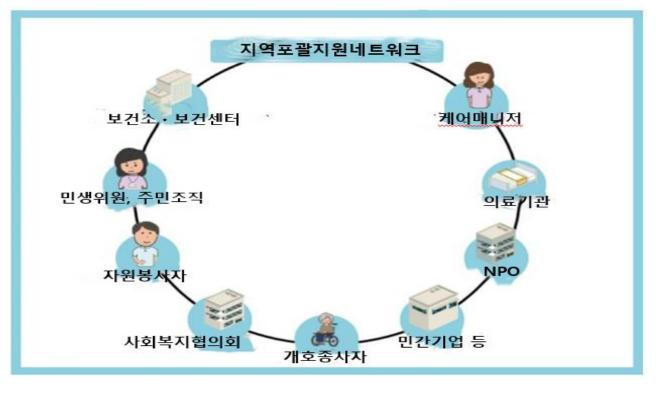
4-2.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중심 정책

- ·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5대 구성요소인 주거와 거주 방법(화분), 개호예방 및 생활지원(흙),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복지 (잎) 등 구축에 정책 지원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지역포괄지원 네크워크의 형성과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성요소



지역 포괄지원 네트워크 개념도



5. 목표의 구체화와 디테일한 성과지표 관리 (정책 관리 측면)

- ㆍ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양적평가가 가능한 목표에 대해 디테일한 핵심성과 지표를 설정 운영
- 인지증 시책 추진대강은 5개의 기본목표를 설정 (143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58개에 KPI 설정)

인지증 시책 추진대강의 목표별 KPI 설정

기본목표	세부목표	세부 추진과제 수	KPI 설정 과제 수	KPI 설정 비율	
보급계발· 본인발신 지원	인지증에 관한 이해 촉진	10	5	50.0	
	상담처 알림	3	2	66.7	_
	본인발신 지원	7	4	57.1	_
	인지증예방 기여 활동 추진	3	1	33.3	
예방	예방관련 증거 수집	3	3	100.0	_
	민간상품 및 서비스 평가	1	1	100.0	_
의료·케어·개호서비스·개호자에 대한 지원	조기발견 등	27	7	25.9	_
	의료종사자 대응력 향상 촉진	5	4	80.0	_
	개호종사자 대응력 항상 촉진	6	2	33.3	_
	의료·개호 기법 보급계발	8	4	50.0	_
	인지증 돌봄자 부담경감 추진	3	2	66.7	_
인지증 배리어프리 추진 등	인지증 배리어프리 추진	33	18	54.5	_
	청장년성 인지증 환자 지원	6	1	16.7	_
	사회참여 지원	3	1	33.3	
연구개발 등	인지증 예방 등 연구	15	2	12.9	
	연구개발 구축	5	1	20.0	
	산업 촉진·국제 전개	3	0	0.0	【(┆┤ 보험연구
계	17	143	58	40.5	-

6. 정부와 금융회사(관민)간 역할 중심 정책 (정책 연계 측면)

- ㆍ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 대응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보험회사 역할 강조
-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과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 · 치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사 등 보험회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 추진 (지원대책 포함)
 - 신오렌지 플랜 및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등 관련 정책 참조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보완적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사례)

금융기관 역할 중시 치매정책

- (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이 치매 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 (예: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금융상품개발 추진,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인지증 관련 다양한 민간보험 가입 등 치매관련 정책 추진 및 지원

IV

치매정책의 시사점

- 1. 치매정책의 내실화
- 2. 보험의 역할 강화

1. 치매 정책의 내실화(1/2)

- ㆍ 치매정책의 전체적인 틀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즉 국가주도의 치매정책, 지역생활권 중심 치매정책 등 전반적인 치매정책 측면
- · 그럼에도 일본은 치매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운용시스템) 강화에 보다 초점
- (치매정책의 내실화 측면에서 본 시사점) (1) 국가치매 관리 거버넌스 강화, (2) 수요자 중심의 통합치매 관리서비스 추진,
 - (3)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 치매관리, (4) 치매관리종합계획내 세부과제의 종합적 추진 등

치매 정책의 내실화 시사점 1

국가 치매관리 거버넌스 강화

- 종합적인 치매정책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등13개부처가 치매정 책 당사자로 참여(유기적 협업)하여 치매정책의 거버넌스 강화 등
- 총리가 치매정책의 최고 책임자, 치매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인지증시책 추진본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치매관리서비스 추진

- 단시간(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권역을 단위로 구성하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운영 (지역의 다양한 주체 참여)하고 있는 점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mark>수요자중심의 치매정책</mark>을 대표하는 수단이며 지역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시사점 존재

1. 치매 정책의 내실화(2/2)

- ·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 치매 관리) 치매의 대상을 노인성 치매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치매정책 초기 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설정)
- · (치매관리종합 계획내 세부과제의 균형추진) 한번 정해진 정책이라도 상황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변화해 가는 유연한 정책 (유연한 스텝업 방식) 채택

치매 정책의 내실화 시사점 2

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 치매 관리

- 치매관리대상을 정책 초기부터 <mark>청년성 치매 등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mark>하고, 소외되어 있던 젊은 층의 치매 환자에 대한 대책 추진 (오렌지플랜이후)
- 치매관련 서비스 및 고용, 주거지원 정책 추진 등

치매관리 종합계획내 세부과제의 균형 추진

-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그에 따라 <mark>종합적인 정책 전반을 재검토</mark>하고 새로운 종합 대책으로 전환
 - 신오렌지 플랜,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추진 등

2. 보험의 역할 강화(1/3)

- · 치매정책 속에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정책의 보완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에 적극 대응함.
- 일본 정부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매우 강조
- ・인지증 시책 추진 대강 등 치매정책에 보험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및 독려
- 예 : 치매보험상품 개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서비스, 보험계약관련서비스, 신탁제도 이용 지원, 치매 서포터 양성, 장기 요양서비스 진출 등

치매정책과 보험의 역할 1

치매보험 상품 개발 (공적보험의 보완역할)

- 민영 개호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가입기준 및 보험금기준을 완화한 치매보험 보험 상품 개발 등 (예: 코아해바라기 생명, 제일생명, 태양생명 등)
 - 중고령자가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쉽도록 위험인수 기준 완화 등

치매예방 및 조기 발견 서비스

-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전용 앱에 의한 인지기능 상태 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예: 솜보재팬, 태양생명 등)
 -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AI 활용, 치매 예방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2.보험의 역할 강화 (2/3)

- ·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 치매환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지 등 보험계약 관련 사항 및 내용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
- · (신탁제도 이용 지원) 치매고령자의 자산 동결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2000년), 후견제도지원신탁, 가족신 탁제도의 이용 등을 지원

치매정책과 보험의 역할 2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

- 치매환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지 등 보험 계약에 관련된 사항 및 내용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 등
- 치매환자가 어느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제공 (생명보험협회: 2021년부터 일괄확인하여 가족에게 알려주는 제도도입)

신탁제도 이용 지원 서비스

- 치매시 금융자산 및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자산 동결이 발생, 환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탁제도 이용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 등
 - 성년후견제도, 후견제도지원신탁, 가족신탁제도 등 상담/중개서비스 제공

2.보험의 역할 강화 (3/3)

- · (치매 서포터 양성 서비스) 치매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지역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여러 도움을 주는 치매 서포터 양성에 보험회사가 적극 역할
 - 보험회사 직원들이 치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에 치매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매서포터 양성 강좌 활성화 유도 등
- ·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치매 환자 등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재가요양+시설요양) 진출 -> 관민역할분담
 - 예: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보험상품<mark>(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mark>과의 연계 (요양시설 이용 또는 재가형 간병서비스 지급)

치매정책과 보험의 역할 3

치매 서포터 양성서비스

- 치매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지역에서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매 서포트 양성 역할
- 보험사 직원들이 치매에 관한 지식 습득 →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지식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 보험회사, 고령자 및 치매 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 요양 사업 진출 가시화
- 예: SOMPO 홀딩스의 자회사 SOMPO Care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동경 해상홀딩스의 동경해상베타라이프, 미쓰이 스미토모, 니혼생명 등

감사합니다.